



12월의 기도

- 총재 조용기목사님의 유지를 받들어 저희 DCEM이 선교활동에 더욱 힘을 더하도록 부단히 노력하게 하시고 이를 위해 물질의 부족함이 없게 하시며 DCEM을 통하여 진정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과 사랑이 계속해서 넘쳐나게 하시옵소서.
- 사랑의 하나님, 이번 한 해 동안 저희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때로는 어렵고 힘든 순간들도 있었지만, 주님의 은혜로 이겨낼 수 있었습니다. 남은 시간 동안도 주님의 인도하심을 따라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도와주시고, 새해에는 새로운 희망과 비전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 주님, 세계 곳곳에서 복음을 전하는 선교사님들을 기억합니다. 그들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모든 계획 가운데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게 하옵소서. 어려운 환경 속에서도 주님의 사랑과 은혜를 전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시고, 그들의 사역이 많은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 추운 겨울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저희 모두의 건강을 지켜주시고, 특히 어려운 이웃들이 따뜻하게 지낼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주님의 사랑으로 서로를 돌보고, 나눔의 손길을 펼칠 수 있는 마음을 허락해 주시옵소서.
- 주님, 한 해 동안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에 감사드립니다. 남은 시간 동안도 감사와 헌신으로 마무리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시고, 주님의 임재하심을 느끼며 살아갈 수 있게 하옵소서. 우리의 삶을 통해 주님께 영광 돌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지난 한 달 동안 후원해 주시고 기도해 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여의도순복음교회, 순복음동경교회,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님께서 후원해 주셨습니다.

그리고 정경자, 최인철, 함석숙 님께서 후원해 주셨으며 별칭 및 익명으로 후원해 주신분들께도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온라인 후원을 위한 계좌안내 :
 예금주 : 디시이엠
 계좌번호 181-22-02127-7 혹은
 256-890020-00804 (하나은행)

조용기 목사 특별 메시지

그리스도 탄생의 의미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이요
 땅에서는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로다 하니라
 (누가복음 2:14)

예수 그리스도의 탄생은 두 가지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첫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지극히 높은 곳에서는 하나님께 영광입니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기 위해 나귀를 타고 예루살렘에 입성하실 때 백성들은 그 길에 길옆을 퍼며 기쁘게 하나님을 찬양했습니다. 예수님의 죽으심이 하나님께 영광이 되기 때문에 찬양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의 죽음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되찾으셨기 때문에 그의 죽음이 하나님께 영광이 됩니다.

둘째로, 예수님의 탄생은 땅에서는 평화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하나님이 기뻐하신 사람들 중에 평화”라고 했지 모든 인류에게 평화라고 말씀하지는 않았습니다. 예수님의 탄생은 하나님의 은총을 입은 사람들에게 평화를 가져다줍니다.

오늘날 세계의 많은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평화를 체험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누가 이 평화를 누릴까요? 회개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구주로 모셔 들이고 그 보혈로 씻음 받으며 성령으로 중생해서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화평을 약속하신 것입니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의 천사가 그들의 일상생활 가운데 평화를 선포합니다. 우리의 외부 환경이 비록 전쟁과 같은 소용돌이에 휩쓸려 들어가는 것 같을지라도 그것은 허상에 불과하다는 것을 기억하십시오.

우리에게는 새 하늘과 새 땅과 새 예루살렘, 영원한 평화가 깃든 곳으로 초청하는 하나님의 초청장이 있습니다. 이 평화는 우리의 영혼에도 깃들고 일상생활에도 깃들며 우리의 육체에도 깃듭니다. 예수님께서서는 당신이 말구유에 탄생하심으로 가져다주신 평화를 우리가 누리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DCEM 뉴스레터 구독신청 안내

DCEM에서는 故 조용기 목사님의 선교 사역의 발자취와 새로운 선교 방향을 제시하기 위하여 매월 정기 간행물 '뉴스레터(DCEM NewsLetter)'를 제작해 무료로 보내드리고 있습니다.

DCEM을 위하여 물질과 기도로 후원하기 원하시는 분 또는 정기간행물을 무료로 받아보시기 원하시는 분께서는 저희 DCEM에 연락주시면 조용기 목사님의 국내외 사역을 소개하고 있는 뉴스레터를 보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성도님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기도 부탁드립니다.

TEL : (02) 6181-5064 / dcem@davidcho.com



2024년 복음을 위한 DCEM 발자취

<오직 마음을 새롭게 하는 도약을 향해>



① 영산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예배 전경(신띠엔싱타오교회) ② 2003년 9월 대만대학교 종합체육관에서 말씀을 전했던 조용기 목사 ③ 영산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예배에서 추모사를 하는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순복음동경교회)

DCEM은 선교 사역과 성령운동을 위한 선교전문기구로서 올 한해에도 복음의 부흥이라는 비전과 목표를 향해 달려왔다. 전세계 5대양 6대주를 다니며 평생을 복음전도의 사역을 감당해 온 조용기 목사의 유지를 받들어 4차원의 영성을 계승해가는 데에 힘써왔다.

조용기 목사 3주기를 맞이한 2024년이 저물어 가는 시점에서 성령님과 동행해온 사역의 역사를 되돌아보며 DCEM은 2025년도 변함없이 세계 복음화에 힘쓸 것을 다짐했다.

지난 9월 12일(현지 시각) 대만 뉴타이베이 시티에 위치한 신띠엔싱타오교회에서 개최된 영산 3주기 추모예배 성회는 DCEM이 주관하고 DCEM 사무총장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의 추모사와 이영훈목사(여의도순복음교



▲영산 조용기 목사 3주기 추모예배에서 영상 추모사를 하는 이영훈 목사(여의도순복음교회)

회)의 영상 추모사가 있었다. 대만의 조용기 목사의 제자인 장마오송 목사가 설교를 맡았으며 가족을 대표로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이 참석했다. 또한 이날 예배에는 대만 전역에서 모인 목회자와 교회 리더, 현지 성도 1500여 명뿐 아니라 일본의 순복음동경교회 성도들 29명도 참석해 대만 땅에 임한 말씀의 부흥을 경험했다.

이영훈 목사는 “우리 모두의 영적 스승 되시는 사랑하고 존경하는 조용기 목사님은 평생을 기도하는 하나님의 종으로서 성령 충만과 절대 궁정의 믿음으로 사셨다. 모든 목회자와 성도들이 나아가야 할 길을 몸소 보여주셨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3주기를 보내며 우리의 삶과 사역을 다시금 돌아본다. 목사님께서 보여주셨던 세계선교에 대한 뜨거운 열정과 교회 부흥을 위한 헌신, 가난하고 소외된 이웃을 향한 사랑의 실천을 우리 모두가 일평생 본받고 닮아가자”고 말했다.

시가끼 시계마사 목사(DCEM 사무총장)는 “천국가신 목사님의 신앙의 유산을 계승하는 대만 교회가 되



어 놀라운 부흥을 이루게 되길 바란다”고 전했다.

성도들은 조용기 목사 회고 영상과 대만 목회자들의 인터뷰를 시청하며 조용기 목사를 그리워했고, 조 목사의 신앙을 계승 발전해 다음세대가 예수님의 사랑과 복음으로 다시금 새롭게 불타오르게 되길 소망했다.

유가족을 대표해 참석한 국민일보 조민제 회장은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모시고 예수님을 닮아 성화에 이르러야 한다고 말씀하신 아버지의 말씀처럼 오늘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삶에도 성령님의 동행하심의 복이 임하길 바란다”고 감사를 전했다.

조용기 목사가 대만 땅에 심은 복음의 씨앗은 2%에 불과했던 대만 기독교를 10%가 넘는 거대한 나무로 성장시켰다.

저물어가는 2024년 한 해를 뒤로하며 20세기 지구를 영적으로 뒤흔들었던 조용기목사의 행진을 회고해본다. 신앙의 단절을 청산하고 계속해서 오직 예수 십자가 복음으로 ‘하나 됨의 비전’을 가슴에 품고 세상을 변화시키는 믿음의 세대를 이루어가기 위해 전력질주를 할 것이다.

하나님의 사랑, 요나의 애국심



DCEM 총재 조용기 목사

...하나님 야훼께서 박영쿨을 예비하시...하나님이 요나에게 이르시되 네가 이 박영쿨로 말미암아 성내는 것이 어찌 옳으나 하시니...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 (요나서 4장 5절~11절)

다.

2.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피난처

하나님께서서는 요나가 물고기 뱃속에 던져지기 전에 물고기를 미리 예비해놓았었습니다. 하나님은 감당하지 못할 시한 당함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감당할 수 있도록 피난처를 준비해놓으신 것입니다. 밤낮 3일을 물고기 뱃속에서 요나는 회개했습니다. 하나님은 하고자 하시는 것은 무엇이든지 하시는 것입니다. 잘못된 길을 가는 요나를 돌리기 위해 하나님께서 풍랑을 보내셨지만, 풍랑을 보내실 때 이미 요나를 위해 물고기를 예비해놓으셨던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고 나오도록 복음을 전했는데 성령이 역사해서 말씀을 듣는 자마다 통곡을 하고 회개를 하고 굵은 베 옷을 입고 잣대 위에 앉았습니다. 하나님은 니느웨 백성들이 회개하는 것을 보시고 난 다음에 자기 심판을 중지시켰습니다. 하지만 요나는 계속해서 정죄와 심판을 주장했습니다. '나는 의롭고 너는 악하다' 그러한 마음으로 '나는 심판을 면하지만 너희들은 심판을 받아야 된다.' 고 생각한 것입니다.

1. 하나님의 뜻을 어긴 요나

요나는 하나님의 뜻을 어기고 다시스로 가는 배를 타고 도망쳤습니다. 요나는 이스라엘의 선지자였습니다.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서 북방 앗수르가 망할 것을 계시하신 것입니다. 그런데 배를 파선시킬 대풍랑이 남쪽으로 도망을 치는 요나가 탄 배에 휘몰아 쳤습니다. 제비를 뽑아서 이 화가 누구 때문에 미치는지 선원들과 승객들이 알기를 원했었습니다. "그 사람들이 힘써 노를 저어 배를 육지로 돌리고자 하다가 바다가 그들을 향하여 점점 더 흉흉하므로 능히 못한지라 무리가 야훼께 부르짖어 이르되 야훼여 구하고 구하오니 이 사람의 생명 때문에 우리를 멸망시키지 마옵소서 무죄한 피를 우리에게 돌리지 마옵소서 주 야훼께서는 주의 뜻대로 행하심이니이다 하고 요나를 들어 바다에 던지매 바다가 뛰노는 것이 곧 그친지라(은 1:12~15)" 요란스러운 폭풍을 몰고 오던 바다가 요나를 받아들였으니 바다가 잠잠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는 바다에 던져진 요나에게 피할 길을 주셨습니다. 물에 빠져 죽을 것인데, 하나님은 요나에게 사명을 다하도록 하시고 물에 빠져 죽도록 내버려두지 않았습니

우리가 죄를 지으면 하나님 앞에 다 죄인입니다. 큰 죄가 있고 작은 죄가 있지만 하나님께 심판받고 지옥으로 내려가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죄를 몇 번까지 지을 수 있는가' 그런 생각을 종종합니다. 베드로가 예수님께 나가서 "주님 우리가 죄 지은 자를 몇 번이나 용서해야 됩니까? 죄 지은 자가 하루에 일곱 번씩 죄를 회개하고 오면 용서해줄 수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하루에 죄를 일곱 번씩 일흔 번을 지어도 회개하고 돌아오면 용서를 해줘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용서를 해주시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정죄와 심판을 주장하는 요나에게 하나님이 교훈을 가르치길 원하셨습니다.

3. 니느웨의 심판을 원한 요나

움막집을 짓고 있는데 하루저녁 사이에 녁쿨이 움막을 덮었습니다. 요나가 아침에 일어나 녁쿨 잎사귀로 부채를 삼으며 하나님 심판이 임하기를 기다리는데, 밤에 벌레가 녁쿨 잎사귀를 갉아 먹어 시들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햇빛을 뜨겁게 비추고 동풍을 불어오게 하니 뜨겁고 더운 곳에 더구나 움막도 덤불

이 다 죽어버리게 돼 요나가 하나님 앞에 와지고 통곡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박영쿨 사건을 통해서 회개와 용서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가르친 것입니다.

4. 니느웨를 용서하신 하나님

하나님께서 자비와 긍휼로 니느웨를 용서하신 것을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야훼께서 이르시되 네가 수고도 아니하였고 재배도 아니하였고 하룻밤에 낚다가 하룻밤에 말라 버린 이 박영쿨을 아꼈거든 하물며 이 큰 성읍 니느웨에는 좌우를 분변하지 못하는 자가 십이만여 명이요 가축도 많이 있나니 내가 어찌 아끼지 아니하겠느냐 하시니라(요나 4장 10절~11절)", "야훼의 말씀에 너희는 이제라도 금식하고 울며 애통하고 마음을 다하여 내게로 돌아오라 하셨나니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 하나님 야훼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는 은혜로우시며 자비로우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애가 크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시나니(요엘 2장 12절~13절)"

하나님은 우리를 용서하고 구원하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누구든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께 나오면, 하나님께서 그를 용서하시고 구원해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좋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이 용서받고 의를 마음에 품고 살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나는 니느웨 성이 하나님에게 심판받아 멸망받기를 원했으나, 하나님은 큰 풍랑을 잠잠하게 하시지 하시면서 회개할 기회를 주신 것입니다. '회개하라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마태복음 3장 2절)' 회개하고 나오는 사람은 유대인이나 이방인이나 할 것

없이 하나님은 용서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용서해주시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담대하게 나갈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할 때 죄를 회개하고 마음에 용서를 받고 하나님 앞에 나가면 아무도 하나님이 물리치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고 용서 해주시면 하나님은 우리의 생활에 영광이 다가오기를 원하시고 계신 것입니다.

여러분 성령의 도우심으로 영혼이 잘됨같이 범사에 잘되며 강건하고 생명을 얻되 넘치게 얻도록 살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8

세례를 받으신 예수님



이 때에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요단강 사방에서 다 그에게 나아와 (마 3:5)

를 믿는 모든 사람들이 그리스도의 모범을 따라서 다 침례를 받도록 하려는 교훈적인 목적이 있습니다.

예수님은 갈릴리에서의 사적인 삶을 다 청산하시고 이제는 온 천하에 구주로 나타나 메시아의 사명을 다하기 위해서 요단 강으로 침례를 받으러 오셨습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바로 그리스도라는 것을 나타내기 위해서 침례요한이 침례 베푸는 곳에 찾아오신 것입니다. 그 전까지는 요한에게 사람들이 구름떼 같이 모여들었습니다. 침례 요한은 사람들의 관심이 자신에게 집중되고 있음을 알고 있었을 것입니다. 교만해 질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한은 예수님 앞에서 겸허하게 자신을 낮춥니다. 세상에서 가장 중요한 것이 겸손입니다. 물이 높은 곳에서 낮은 곳으로 흐르듯이 은혜도 낮은 곳으로 임합니다. 우리는 은혜를 받으면 받을수록 우리 자신을 낮추어야 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낮추어야 합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멸망의 앞잡이인 것입니다. (잠 16:18)

삼위일체 하나님

"예수께서 침례를 받으시고 곧 물에서 올라오실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자기 위에 임하심을 보시더니 하늘로서 소리가 있어 말씀하시되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 하시니라" (마 3:16,17)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

시니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의 성령이 비둘기 같이 내려 그 위에 임하셨습니다. 예수님이 하늘문을 열어제치시고 인류 문제의 해답으로 성령을 불러 내리신 것입니다. 성령은 인류 문제의 해답입니다. 인류의 죄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성령이고, 인류의 미움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성령이고, 질병과 고통에 대한 문제의 해답도 성령입니다. 성령이 운행하시면 기적이 일어납니다.

우리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고 성령님을 모시고 살때, 하늘나라 백성인 우리가 말하는 것과 행동하는 것이 성령으로 말미암아 열매를 맺게 됩니다. 예수님은 바로 하늘나라 문이요, 하늘나라 말씀이며, 그것을 이루는 능력은 바로 성령입니다. 하나님은 우리 인생 문제의 해답으로 예수님과 성령님을 보내셨습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박혀 몸 찢기고 피를 흘려서 하늘 문을 열어 놓으시고, 예수 그리스도의 역사를 우리에게 이루기 위해서 성령을 보내신 것입니다. 또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내 기뻐하는 자라"고 하시는 하나님의 음성이 들립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모습을 드러내신 것입니다.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이 교통합니다. 화해가 넘칩니다. 한 자리에 나타나신 삼위일체 하나님을 통해 우리는 크신 사랑을 느낄 수 있습니다.

*영산강해는 조용기목사님의 마태복음 강해서 「예수 그리스도의세계」에서 요약 발췌하였습니다.



"이때에 예수께서 갈릴리로부터 요단 강에 이르러 요한에게 침례를 받으려 하시니 요한이 말려 이르되 내가 당신에게서 침례를 받아야 할 터인데 당신이 내게로 오시나이까 예수께서 대답하여 이르시되 이제 허락하라 우리가 이와같이 하여 모든 의를 이루는 것이 합당하니라 하시니 이에 요한이 허락하는 지라" (마 3:13~15)

예수님이 요단 강에서 침례를 받으신 것은 대단히 큰 의미가 있습니다. 침례는 변화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와 함께 내가 죽고 다시 살아나는 부활의 의미가 침례 속에 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완전한 하나님이요, 완전한 사람인데 무슨 변화를 받을 필요가 있겠습니까? 예수님은 죄를 지은 적도 없으시고 죄악중에 태어나지도 않으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침례를 받으신 것은 온 천하 만민에게 구주로서 소개를 받으려는 목적과 예수님도 침례를 받으셨으니 주